



비료와 식량

2023년
5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무기질비료 상식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태국 치아타이·삼성C&T 40주년 행사 성료
- 종자·비료·식물보호제품·농업장비 공급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됐던 태국 치아타이·삼성C&T사와의 3사 교류 행사를 40주년을 맞아 여수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치아타이는 지난 1921년 태국에서 설립돼 종자와 비료·식물보호제품·농업 장비를 공급하며 최근에는 농산물 배송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종합 농업기업이다. 남해화학은 지난 1983년부터 연간 약 30만t의 고품질 비료를 삼성C&T사를 통해 치아타이사에 공급, 올해 3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온 거래가 40주년을 맞았다.

치아타이 주요 임원들은 최근 전남 여수 남해화학의 고품질 비료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존 수출 제품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한 시비가 가능한 신규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를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마나스 치아타이 사장은 “우리는 남해화학의 품질을 항상 신뢰하며 단순 거래 관계 이상으로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40년 인연을 바탕으로 100년의 인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형수 남해화학 사장은 “4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한결같이 남해화학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해화학은 언제나 최고의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남도일보(2023.4.30.) 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 [‘완효성 비료’] 작물 생육 맞춰 성분 용출...노동력·생산비·환경 모두 잡는다
- 벼 이앙 때 한 번만 시비하고 하천 등으로 유실도 최소화

- 국내 최초 ‘완효성 비료’ 개발 40여 년간 다양한 제품군 선배, 시장점유율 1위 굳건히 유지
 - 식물유 함유 코팅 등 통해 100% 생분해 제품개발 박차
- 1980년대부터 완효성 비료개발을 선도해 온 조비는 지난 40여 년간 다양한 완효성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완효성 비료를 국내 최초 개발한 조비는 생분해성 피복 라인을 구축하고 비료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완효성 비료개발을 선도해 온 조비는 지난 40여 년간 다양한 완효성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비는 비료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연관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작물에 살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분이 용출되는 ‘시그모이드 형’ 타입의 코팅 기술을 개발하며 본격적인 완효성 비료 시대를 열었다. 2006년에는 비료 용출 기간을 30~100일까지 조절되도록 코팅을 개선한 ‘단한번’비료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도 취득했다.

조비의 완효성 비료는 수도작은 물론 연속 수확 작물과 생육기간이 길고 시비 횟수가 많은 원예용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단한번 비료에 MCF(고분자메트릭스비료)를 결합해 질소 용출 지연 효과를 더욱 강화했고, 완효성 비료의 효능은 한층 높였다.

조비 이승연 대표이사는 “조비는 연간 1만5000톤의 코팅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다”며 “농협 수급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55%를 기록하고 있다. 완효성 비료 최초 개발을 시작으로 농업인의 편의성 향상과 노동력, 영농비 절감, 농업환경 보전 등을 통해 완효성 비료 시장의 대표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0% 생분해 완효성 비료개발 눈앞

조비의 완효성 비료는 ‘생분해’ 기술로 발전했다.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되는 재질로 코팅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벼 이앙과 동시에 흙 속에 시비하기 때문에 생분해가 최적이다. 토양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때문이다.

조비의 생분해 완효성 비료 코팅 물질은 식물유 원료를 50% 이상 함유하고 있어 토양미생물과 햇빛에 의해 분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애경케미칼이 개발한 식물성 오일 기반의 코팅용 수지를 도입해 전 제품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코팅용 수지는 미국 농무부가 요구하는 바이오 탄소 함량 기준 22%를 월등히 뛰어넘는 57%로 USDA 인증도 받았다. 조비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100%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 완효성 비료를 수년 내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비의 완효성 비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에 팜나무 전용 완효성 비료 100톤을 수출한 데 이어 ‘CHOBI COTE’라는 완효성 전문 브랜드로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승연 대표이사는 “조비는 완효성 비료의 최초 개발부터 국내 농업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로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고품질화, 농업환경 보전을 선도하겠다”며 “앞으로 생분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 수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5.19.) 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팜한농-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생물자원 발굴·친환경 농자재 개발 협력



팜한농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생물자원 발굴과 친환경 농자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은 4만 주에 달하는 바이오 소재를 바탕으로 농자재용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팜한농은 친환경 농자재 개발에 적합한 생물자원 선별, 사업성 평가, 제품개발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7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김차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은 “전북분원이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생물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1위 그린바이오 기업 팜한농과 협업해 첨단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용 팜한농 대표는 “방제 효과가 우수한 차세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5.2.) 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엔피코 명품(名品)비료 출시

- 완효성 코팅 요소 함유로 측조시비 효율 향상! 작물 생육증대 !

엔피코 명품비료 2종 명품300(30-10-8, 고토1, 완효성함유), 명품22(22-7-10, 고토1, 붕소0.2, 완효성함유)는 완효성 코팅 요소 함유로 양분공급 강화 뿐만 아니라 측조시비 효율이 향상되도록 제조되어 관행 비료(21-17-17, 맞춤비료)대비 비효가 지속적이며, 가지거름 생략이 가능한 기능성 시비 절감형 비료입니다.

명품비료는 기존 관행 비료(21-17-17, 맞춤 비료 등)의 단점과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되었습니다.



첫째, 명품300은 국내 최고 고농도 측조시비 제품으로 완효성 코팅요소, 칼라요소 함유로 측조시비 시 막힘없이 균형시비가 뛰어나며, 속효성 양분의 초기 뿌리 활착 촉진과 완효성 양분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육중기 분얼수 확보가 뛰어난 고농도 비료입니다. 시비량 절감 효과가 뛰어나 경제적이며 비료 사용효율이 우수합니다.

둘째, 명품22는 시비효율을 개선하여 측조시비 완성형 밀거름으로 기존 21-17-17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완효성 코팅요소, 칼라요소 함유로 측조시비 완성, 초·중기 생육 향상, 저인산 형태로 제조되어 이끼·괴불 발생 예방이 가능한 밀거름비료입니다.

가지거름 생략 뿐만 아니라 기존 21복합대비 원예, 과수 작물 사용에도 효과가 매우 뛰어나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엔피코 명품비료는 농촌진흥청 공인기관 수도(벼) 재배시험결과 관행 대비 3~6% 수량 증수 효과를 나타냈고, 쌀 품위 검사결과 단백질 함량, 아밀로스 함량이 낮고, 고토/칼리 비가 우수하여 쌀알이 투명하며 찰기가 있고 밥맛이 우수하였으며, 수도(벼) 생육 향상 및 고품질 벼 재배에 적합한 기능성 비료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명품300 수도 25~30kg/10a, 원예·과수 30~50kg/10a, 명품22 수도 35~40kg/10a, 원예·과수 40~80kg/10a 이며, 보통 논(일반재배토양 기준), 전층시비 또는 측조시비 및 정식전 토양 혼합 처리시 사용효율이 우수합니다.

※ 풍농 자료 인용

□ (주)한국협화

○ “4종 비료로 무름병 ‘씩’ 잡아”

- 신제품 출시, 농가 “저온 피해 막아줘”
“무름병 발생이 99% 줄었어요.”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에서 5300㎡(1600평) 규모로 애호박을 재배하는 안승윤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새로운 4종 비료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 정식한 애호박 출하를 앞두고 작물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안 씨는 우선 12월초부터 한국협화의 <임팩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임팩트>는 한국협화가 50년의 비료 제조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새롭게 출시한 제품으로, 가뭄·고온·장마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생육과 개화·수정 등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미세한 입자와 100% 효소 분해 기술을 적용해 작물 흡수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안 씨는 해당 제품의 저온 피해 예방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 겨울 예천지역엔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날이 많아 저온 피해로 인한 수량 감소 피해를 본 농가가 적지 않았지만 안 씨 농장의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평년과 견줘선 오히려 늘었다.

안 씨는 “생육이나 저온 피해 방지, 활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 여름 작기 수준으로 꽃이 달렸다”며 “일부 저온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도 회복이 빨라 수확량 감소가 없었다”고 말했다.

3월부터 사용한 <속판판>은 무름병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 봄 작기 상품성 강화를 위한 기능성 복합 영양제로 출시된 해당 제품은 무름 증상 예방·감소와 상품성·저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양길호 한국협화 팀장은 “기온·습도가 올라가는 봄철엔 비료·영양제를 살포해도 식물체의 끝까지 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판판>은 전 성분을 킬레이트화해 영양 성분이 세포벽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펙틴’과 결합되는만큼 작물 끝까지 양분이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 농민신문(2023.5.15.) 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신임 전무 유관기관 인사 방문

- 무기질비료 산업 현황 업무 보고(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진청 등)

□ 원료구입자금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

- 남해화학, 5.17., 풍농, 5.24.
- 근거 : ‘23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5. 이행점검 단계의 사후 관리와 관련, 한국비료협회에서 연 2회 이상 현지 실태조사 등 자금이용 현황 점검에 따름

□ 농기자재 수출 확대 간담회 참석(농정원, 5.17.)

- 비료 수출 현황 및 건의사항 발표

< 농정원 수출확대 간담회 참석 무기질비료 수출 건의 >

□ 현 황

- 무기질비료 수출업체 비료원료 대부분 수입(제조원가 약 70% 수준 차지)
 - ※ 주요 원료 : 요소,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 암모니아, 인광석 등
- 중국·카타르·사우디·러시아·모로코 등은 원료 생산국이며 완제품 대량 생산국으로 가격경쟁력이 우월
 - ※ (복합비료) 중국산 대비 톤당 가격이 약 30달러 높아 가격경쟁력 낮음
 - ※ (고부가가치 복합비료) 노르웨이 등이 고품질 제품을 저가로 공급
 - ※ (부산물 가공 황산암모늄) 주력 제품인 카프로락탐 수익에 따라 생산 좌우
- 완제품 수출시 물류비 부담(톤당 60달러)으로 동남아 외 신규시장 개척·확대 곤란
- 복합비료는 매년 일정량 수출되고 있으나, 황산암모늄은 국제 시황 영향으로 수출물량 불안정
 - ※ 비료는 중량물로 해상 운송비가 높아 근거리 국가로 수출, 장거리 국가 수출시 운송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 약화
 - ※ '22 인도, 동남아 등(15개국) 근거리 수출 69.4% 비중, 미국·멕시코·뉴질랜드·호주 등 29.0%

【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비료 수출 현황 】

(단위 : 천 톤, 백 만달러)

구 분	물 량					금 액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복 합 비 료	645	695	676	752	588	212	211	195	259	355
황 산 암 모 뇨	531	561	391	603	234	71	72	43	120	75
기 타	229	181	187	163	180	80	63	64	73	151
계	1,405	1,437	1,254	1,518	1,002	363	346	302	452	581

※ 관세청 통관 실적(협회 회원사 외 포함), 기타는 질산암모늄 외 칼리질비료 등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업체별로 유사 비료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단가, 물량 등 관련 정보 누출을 꺼려 협회 차원 정보수집 한계
- 교역대상 국가별 기상여건, 수입업체 재고량, 국제비료 원료 수급 및 가격 등 여건에 따라 수출 물량 및 금액 급변

【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료 수출 업체 현황 】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물 량					금 액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계	1,282	1,308	1,125	1,411	879	320	303	261	409	481

※ 회원사 실적 취합



비료와 식량 -2023년 5월호-

- 비료 수출단가 및 수출액은 원료가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원료가격 하락시 수출 실적도 동반 하락
【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료 수출 및 원료 수입 단가 】

(단위 : 달러/톤)

비종	비료 수출 단가					원자재	원료 수입 단가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복합비료	327	303	289	344	604	암모니아	348	289	272	546	948
황산암모늄	134	127	111	199	320	염화칼륨	319	350	296	317	776

※ 관세청 통관실적

- 국제신용정보회사 피치는 '25년까지 국제 원료가격 하락(60~70%)을 전망, 수출 실적 악화 예상
【 향후 5년간 연도별 비료 원료가격 추정(22년 9월) 】

(단위 : 달러/톤)

원료	'22	'23	'24	'25	'26	장기
암모니아	1,000	750	450	300	280	280
요소	650	500	350	270	260	260
인광석	270	160	90	90	90	90
인산암모늄	900	550	380	360	360	360
염화칼륨	600	460	350	230	230	230

※ 피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건의사항

- 신규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시장/업체 정보 등) 수출입 동향·수집 및 제공
- 홍보물 및 판촉물 제작 비용 지원, 박람회 부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컨퍼런스 참석 인원에 대한 비용 지원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세미나 개최
- 비료 단독 박람회 추진(타 농자재와 공동으로 진행시 관심도 낮음)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농협 무기질비료 가격 하향 조정

- 1분기 이어 2분기에도 요소 15%·21복비 10% 등
- 4월 27일부터 기준가 적용

무기질비료 가격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하향 조정됐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최근 비료 원자재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무기질비료 종류별 판매기준 가격이 인하됐다. 주요 비종별 판매기준 가격은 요소(그레놀) 1만7700원으로 1분기 2만700원보다 15% 하향 조정됐다. 또한 21복비도 2만550원으로 1분기 2만2800원보다 10% 떨어졌고, 맞춤16호는 1만7000원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으로 1분기 1만8400원보다 8% 하락했다. 2분기 기준가격은 4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차액 보조금도 1포대당 요소(그레놀)의 경우 1분기 8100원에서 이번에 5700원으로 줄었고, 21복비는 8300원에서 6500원으로, 맞춤16호는 6300원에서 5150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은 2021년 8월 대비 가격 인상 차액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격이 인하되면 인상 차액이 낮아진 만큼 보조금도 다시 조정된다.

이번 무기질비료 기준가격과 보조금 재산정에 따라 농업인들이 실제 구입하는 금액도 떨어졌다. 비종별로 보면 요소(그레놀) 1포대가 1만2000원으로 1분기 대비 5% 하락했다. 다만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1년 1만600원과 비교하면 13% 높은 수준이다.

또한 21복비 실구입 가격은 1만4050원으로 바로 전 1만4500원대비 3% 하락했고, 맞춤16호도 1만1850원으로 2% 내렸다. 21복비와 맞춤16호 또한 2021년 각각 1만2400원, 1만550원이었기 때문에 연이은 비료 가격 하향 조정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2분기 무기질비료 정상 판매기준 가격은 1포당 평균 1만 7553원이지만, 보조사업을 통한 실제 농업인 구입가격은 평균 1만3029원으로 기준가격 대비 26% 저렴하게 비료를 구입할 수 있다”며 “국제 원자재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기별 가격연동제 조치로 하향 조정했고, 앞으로도 비료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4.28.) 기사내용 인용

□ 2분기 비료 가격 10% 인하...비료 업계 “팔수록 적자 폭 커져”

○ 1분기 가격 결정 늦어 출하량 줄었는데 ‘엷친 데 덮친 격’

최근 농협경제지주가 2분기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가격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비료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협경제지주는 2분기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가격을 1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분기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가격 인하 이후 또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높은 가격에 사들인 원재료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팔아도 손해라는 의견이다.

이번 2분기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가격 인하는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세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 상반기 비료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를 지난해 마친 업체 입장에서는 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가격 인하에 앞서 1분기 계통구매 가격 결정이 늦어져 출하량이 크게 줄어 현재 재고량이 업체마다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출하량 역시 저조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계통구매 가격까지 인하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1분기와 2분기 연이은 가격 인하로 20% 이상 가격하락이 됐다. 인하 이유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원재료를 구매하는 시기가 돼야 하는데 기준이 현재라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지난해의 경우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의 10%를 업체가 부담하는 등 많은 부분 업계에서도 참여한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출하량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료 업계를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농업신문(2023.5.12.) 기사내용 인용



비료와 식량

-2023년 5월호-

□ (농촌진흥청)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고시안 2일부터 시행

○ 규제개선으로 '우량비료 지정제도' 운영 활성화 전망

- 새로운 비료개발 및 품질개선 촉진 기대

【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지정 분야	토양환경 영향 개선, 생산성 증대 효과, 경제성 향상 효과의 종합 검토	①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 농업 생산성 증대 ③ 농업경쟁력 제고의 분야별 검토
신청 자격	공정규격 설정을 요청한 자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지정 요건	○균일하게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 ○연간 1,000ha 이상 규모의 생산·공급이 가능할 것 ○새로이 개발되어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로서 비료생산업 등록 후 유통·공급을 시작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 현행유지 〈삭제〉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로 비료생산업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 (3년 경과 조건 삭제)
제출 서류	○재배시험성적서 ○이화학적 특성 자료 ○토양 영향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산성 증대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자료 ○우량비료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사항	○현행유지 ○현행유지 〈분야별 제출〉 ○관련 분야별 효과를 나타내는 비료의 특성 및 경제성 분석자료 〈삭제〉
지정 기준	○대조구인 기존 비료보다 우수	○대조구인 기존비료(우량비료 포함)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시 인정 ○대조구가 우량비료일 경우 비등효과 인정 (농업경쟁력 제고분야에 한함)
유효 기간	○5년 - 재지정의 경우 3년 연장	○4년 - 재지정 없음
표시 사항	○우량비료 〈신설〉 ○지정번호 (예: 2014-우량비료- 01)	○우량비료(지정분야) ○제품명 ○지정번호 (예:2022-우량비료(농업환경보호)-01)
사전 검토	〈신설〉	사전검토 절차 마련(시험방법, 제출서류의 범위 등 컨설팅)

※ 농촌진흥청(2023.5.2.) 보도자료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4 농정 이슈

- (농식품부)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농업·농촌 혁신 속도낸다!

 - 가루쌀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등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 향후, 쌀값 안정, 식량자급률 반등(’23:48.0% → ’27:55.5), 직불제 확대(’24:3조원→’27:5),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활성화(’23:135억 불 → ’27:230), 신산업 성과 가시화를 통해 국민의 산업으로 농업 위상 재정립 계획

※ 농식품부(2023.5.8.) 보도자료

- (농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 밀 공공 비축 작년보다 3.5천 톤 늘어난 2만톤 수매

 - 전년보다 1주일 앞당겨 수매 시작(’22, 6.22~7.31. → ’23, 6.16~7.31.)
 - 산물수매 대폭 확대(’22, 4개 지역, 1천 톤 → ’23, 8개 지역, 6천 톤)

※ 농식품부(2023.4.25.) 보도자료

- (농식품부) ‘22년 농업소득은 경영비 증가 등으로 감소, 농업 외 소득·이전소득은 각각 7.4%, 2.9% 증가

5월 18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161만 원) 감소했다. 농가소득 구성 별로는 농업소득은 주요 품목의 경영비 급등과 수입 하락에 따라 감소했으나, 이전소득과 농업 외 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 감소 폭을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을 추진(’22~)하고, 농가 사료 구매자금 (1조5천억 원 규모 융자,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및 시설농업 유가보조금도 지급하였다.

또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였다. 2021년 10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산지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톤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22.9.25), 그 직후 산지 쌀값은 16.7% 반등(’22.9.25일 40,393원/20kg→10.5일 46,994)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 안전망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본직불은 중소 농을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2023.5.18.) 보도자료

□ (농정원)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5월 17일 세종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에서 이종순 농정원장 주재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중자협회 김창남 회장, 한국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노학진 이사장, 한국 친환경농자재협회 안인 부회장, 한국비료협회 박춘근 전무이사,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시민 이사 등 국내 농기자재 관련 12개 협회의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하여 품목별 수출 전망과 애로 사항,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농경원(2023.5.17.) 보도자료

□ (통계청)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 '23년 마늘 재배면적은 24,710ha로 전년 22,362ha보다 10.5% 증가

- ('22) 22,362ha → ('23) 24,710ha

• 최근 가격 상승세 영향 등으로 올해 마늘 재배면적 증가

○ '23년 양파 재배면적은 17,263ha로 전년 17,661ha보다 2.3% 감소

- ('22) 17,661ha → ('23) 17,263ha

•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양파 재배면적 감소

※ 통계청(2023.4.27.) 보도자료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 천 톤, 누계)

구 분	'20년	'21년	'22년	'22년 3월	'23년 3월
생 산 량	2,142	2,397	2,039	611	554
출 하 량	2,054	2,429	1,860	592	514

※ 협회 회원사 기준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 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암모니아	437	672	957	936
D A P	485	749	948	859
염화칼륨	271	363	633	965
환 율 (매매기준율)	1,117	1,171	1,232	1,351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6 무기질비료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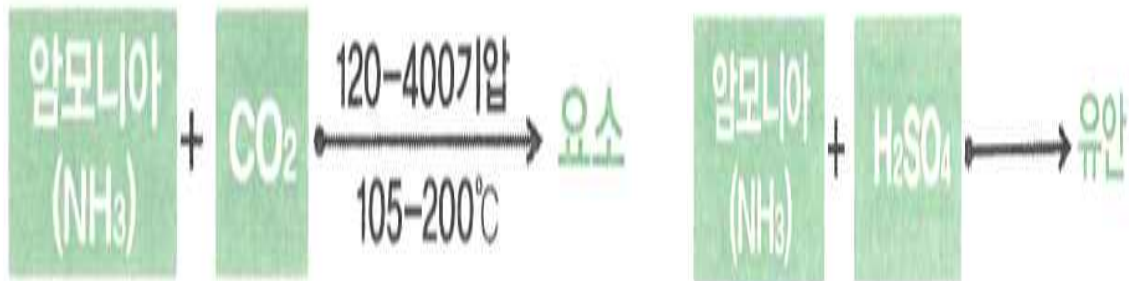
□ 질소질비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질소비료는 1915년 공기 중에 80%를 차지하는 질소를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법이 개발되면서 시작되었는데, 1918년에 독일의 하버가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라는 별명과 함께 노벨상을 받은 기술입니다.



지금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요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다시 이산화탄소(CO₂)와 혼합하고 고온·고압에서 반응시켜 요소를 제조하며, 황산 암모늄(유안)비료는 암모니아에 황산을 첨가시켜 여러 반응을 거쳐서 제조합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암모니아와 요소를 생산하였으나, 2002년과 2011년 각각 가동을 중지하여 현재는 암모니아와 요소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휴과 비료이야기”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현해남 교수)

7 이달의 주요 인사

□ 협회 인사

- 운영열 전무이사 퇴임
- 박춘근 전무이사 취임('23.5.1.)



- 1998년 9월 국립종자원
- 2004년 10월 농식품부 식품산업과
- 2015년 1월 방역관리과
- 2016년 6월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2018년 4월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

□ (주)조비 인사 ('23.5.8.)

- 마케팅본부 김영순 사업개발팀장
- 前 경농 특수영업팀장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슈퍼솔 참외용
- 성분량 : 4-15-40+TE(미생물 함유)
- 특성 및 효과
 - 참외의 착과 및 과실 비대에 알맞은 양분구성으로 제조
 - 미생물(Bacillus velezensis)이 함유되어 있어 양분 흡수 증대, 토양 개량, 염류집적 경감의 효과
 -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여 물에 잘 녹으며 작물 흡수가 빠름
 - 미량성분이 킬레이트화되어 토양고정, 용탈 없이 작물흡수가 뛰어나

□ (주)조비



- 제품명 : 단번에 올코팅
- 성분량 : 30-8-7 (NPK 코팅 완료성)
- 특성 및 효과
 - 밑거름 한번으로 비효가 3~4개월 지속되며, 질소, 인산, 칼리 전 성분 코팅으로 비효가 안정적
 - 입자가 균일하고 단단하여 측조시비 등 기계살포에 적합한 비료
 - 수확량과 품질 향상,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비료
 - 비료 흡수 효율을 높게하여 양분 유실 및 토양과 수질오염을 줄여 줌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지 않아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큰 효과

□ (주)팜한농



- 제품명 : 롱스타K
- 성분량 : 19-10-10+1+0.1 (질소, 칼리 코팅 완효성 비료)
- 특성 및 효과
 - 질소와 칼리가 코팅되어 있어 생육후기까지 비료 효과가 지속되어 추비를 생략할 수 있음
 - 칼리 코팅으로 알곡 품질 향상과 추비 절감, 고품질 수확에 도움을 줌
 - 생육시기에 맞춰 양분 용출을 조절해 시기별로 알맞은 양분을 공급
 - 밑거름 1회 시비로 가지거름, 이삭거름 생략이 가능하여 노동력이 절감
 - 입도가 균일해 기계 살포가 편리하며 특히 측조시비에 매우 적합

□ (주)풍농



- 제품명 : 올코팅하이룽
- 성분량 : 30-6-8
- 특성 및 효과
 - 100% 올코팅으로 균일하고 매끈하며 단단한 경도로 제조
 - 측조시비 등 기계시비 시 막힘없는 작업성
 - 고농도 완효성비료로 시비량, 노동력 절감
 - 생육후기까지 양분이 고르게 공급,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완효성 양분 공급으로 이끼, 괴불 발생 경감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땅심측조짱
- 성분량 : 28-7-9+1+0.1(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 고농도 측조시비 전용비료
 - 초기생육에 효과적이며, 증수효과 우수
 - 비효가 오래 지속되며 미질향상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NK
- 성분량 : 25-0-10+1+0.1(웃거름)
- 특성 및 효과
 - 생육중기 이후 필요한 성분을 속효성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작물의 후기생육에 효과적인 웃거름 전용비료
 - 벼의 내병성, 등숙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

□ KG케미칼(주)



- 제품명 : 축조로한번만
- 성분량 : 22-7-9+1+0.2
- 특성 및 효과
 - 시그모이드 타입 완효성 비료
 - 비료 성분이 적기에 용출되어 작물의 흡수이용율을 높여 수확량 증대
 - 입자가 균일하고 강도 높아 축조시비에 적합

※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비료와 식량

-2023년 5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